

일본 기술연수 결과보고서

강 문 정 외 29명
(사)한국조경수협회

- ◆ 연수일시 : 2003. 6. 30 ~ 7. 4(4박 5일)
- ◆ 연 수 지 : 일본 동경 모범 조경수생산단지
- ◆ 인 원 : 한국조경수협회 강인 회장 등 29명

I. 연수 목적

일본 선진 조경수 생산 재배농가와 유통단지 등의 견학을 통한 선진 재배기술, 신제품개발 및 유통산업의 정보습득으로 관상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조경사업의 육성과 한·일 간의 조경기술 협력강화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코저 하는데 연수 목적이 있다.

II. 연수 개요

일상적으로 조경수를 생산하고 조경공사를 하다 보면 조경수 생산재배방법이나 공원, 아파트, 도로 주변 등의 조경조성에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이 있

다. 아직까지는 조경수 생산자들이 소규모로 재배하고 영세하므로 대규모의 투자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경수목들의 관리 상태나 상품성 면에서 부실한 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늘 거의 같은 재배방법과 신제품 개발 없이 항상 막연히 기대를 거는 고정 수종과 속성수 위주의 수종을 밀식 재배하여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고 생산에만 급급한 나머지 출하시기를 놓쳐 조경수재배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 조경수생산자나 조경인 모두가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요즘 우리사회에서도 조경에 대한 인식이 차츰 변하고 있고 세계화, 국제화 시대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조경수생산업자들

일본 기술연수 결과보고서

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신품종의 조경수를 생산하고 선진기법의 재배기술로 원가를 절감시키고 체계적인 유통구조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는 우리 조경수 생산업자의 머릿속에 항상 맴도는 숙제였을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정책 당국의 보다 많은 지원이 절실하지만 신품종을 개발하고 선진 재배기술을 도입하고 안정적인 유통구조를 확립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생산재배 및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조경수의 품질향상은 물론 순이익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우리나라 도시녹화의 발전을 가져올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부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해마다 선진 조경수생산지 방문 및 기술교류, 정보습득을 위해 산림청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는 조경수생산에 활력소가 되고 기폭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수를 통해 무엇인가 얻어오고 이를 적용하여 조경수생산에 큰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란 생각을 하면서 올해 연수는 일본의 수도인 동경을 중심으로 후지사와, 닛꼬, 사이타마 등 선진 조경수생산지를 방문하고 동경 시내의 공원과 황궁, 하꼬네 국립공원, 닛꼬 국립공원 등을 시찰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협회 모범농장 회원사를 비롯해 참여 회원사님들에게 소귀의 성과와 보람이 있는 연수가 되고자 하였다.

III. 연수 내용

◎ 6月 30日(첫째날)

■ 인천 국제공항 → 나리타 국제공항 → 긴자거리
→ 왕거 주변 녹지공간 → 신도정 전망대 → 신주쿠거리

인천 국제공항을 11시 20분경에 이륙하여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 14시경에 도착, 우리 연수단은 간단한 입국소속을 마치고 전용버스에 승차 고속도로를 약 2시간정도 달려 동경시내에 진입 하였다. 고속도로의 중앙 분리대는 관목과 잔디, 지피류 등이 식재 되어 있었으며 도로변에도 회화나무 등의 교목과, 관목류, 잔디, 지피류 등이 잘 정돈되어 식재 되어있었다. 특히 방음벽에 담쟁이 덩굴로 보이는 덩굴성 식물로 피복이 되어 있었으며 경사면 교목류 식재부위에는 흙의 붕괴를 막기 위해 대나무로 보기 좋게 감싸놓은 광경은 인상적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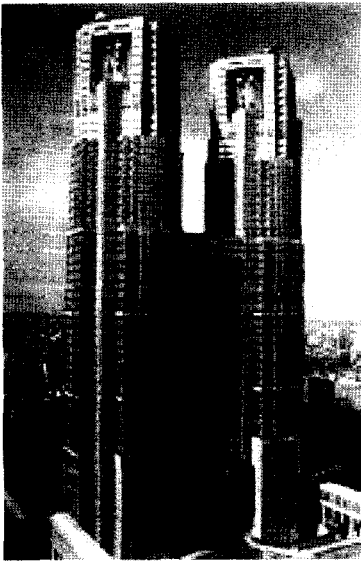
동경시내 진입 후 첫번째로 둘러본 것은 일본 최고의 쇼핑가로 유명하고 역사가 오래된 점포들과 유명백화점,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긴자거리였다. 아직은 이른시간 이고 월요일이라 붐비지는 않았고 이곳에서 유명한 미스코시백화점을 간단히 둘러보았는데 우리나라의 중심가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여 우리나라도 매우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긴자거리 도로변의 가로수는 직립형 느티나무로 식재되어 있었으며 수고가 7~8m되고 지하고가 2m이상 되어 전선과의 충돌 없이 잘 정돈되고 수목의 수형에 맞게 잘 전정되어 우리나라의 도심 주변의 가로수 상태와는 비교가 되었다. 이어 우리 연수단은 일본의 천왕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궁서로서 일반인에게는 신년때와 왕

일본 기술연수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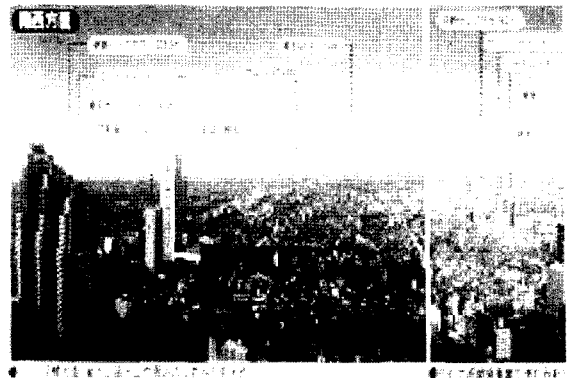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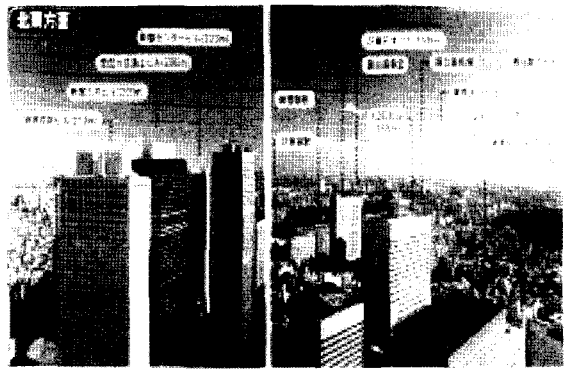
은 노력을 한다면 이곳과 견주어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연수단은 해송을 뒤로 한 채 동경 신도청 전망대로 이동 하였다.

동경신도청사는 일본의 제일 변화 지역인 신주쿠에 소재하고 있었고 청사의 높이는 45층 202M로서 2개동(남측,북측)이 있다. 이 동경신도청사를 유명하게 만들은 것은 그 규모와 시설이 아닌 45층에 있는 전망대다. 전망대까지는 전망대 전용 고속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45층까지는 단숨에 올라갈 수 있었고 한눈에 동경시가지를 볼 수 있었다. 동경 시내를 바라보면 넓게 펼쳐진 평지에 다양한 건물과 주택들이 뽁뽁하게 들어차 있었고 야산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이곳을 내려와 쇼핑빌딩이나 음식점, 영화관 등이 있는 번화가로서 일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신주쿠의 거리를 둘러보았고 이곳 또한 가로수의 관리는 튼튼한 지주목과 함께 잘 정돈 되었다는 느



의 생일 때 외는 개방하지 않는 은밀한 곳인 황거(교교)로 이동하였다. 차창 밖으로 오픈스페이스의 황거외원에 각기 아름다운 형태의 수형을 사랑하는 해송(혹송)을 볼 수 있었고 황거 주위에는 인공 연못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일행은 버스에서 내려 황거 주변을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어떻게 각양각색의 해송을 몇백년 동안 유지하고 자연형태로 전정하고 가꾸어 놓았는지 의아심이 들었고 짧게 깎아 놓은 잔디의 관리상태를 보면서 일본사람들의 섬세함을 볼 수 있었다. 우리도 낙낙장송 등 우리나라 특유의 적송을 보전하고 상품개발에 좀더 많



일본 기술연수 결과보고서

김과 간접적으로 일본의 문화를 체험한 뒤 첫날 일정을 마감하였다.

◎ 7月 1日 (둘째날)

■ 후지사와 다카하시 녹화원 → 하교네 국립공원
→ 아시호수 → 오와쿠다니 → 동경귀환

오전 8시 버스에 승차하여 일본 가나가와현 중부에 위치하고 인구 37만 정도인 후지사와시로 이동 그 곳의 다카하시녹화원(高橋綠化園)을 방문하였다. 농장 진입로가 좁아 주차시키는데 고생하였지만 다카하시사장을 비롯 부인, 직원들이 친절히 우리 연수단을 맞아 주었고 녹차와 음료수도 미리 준비해놓고 있었다. 다카하시 녹화원은 18,000평 규모에 200~300여 수종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생산만 주로하고 있는 농장 이었다. 다카하시 사장은 공직에 있다가 아버지가 농사짓고 계시어 대업을 이어받아 31세부터 30여 년 동안 농장을 경영해오고 있었으며 현재 62세였다. 종업원 5명, 사무원 1명등 7명정도가 농장일을 하고 있었으며 울타리 식재를 해놓은 단풍철쭉, 유럽에서 들여온 지피류, 해송, 먼나무, 산딸나무등 3~4만주가 재배되고 있었다. 현재 일본이 불경기라 공공사업등이 없어 공공사업 부분에 수요가 없고 개인수요가 있을 뿐이라면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유럽에서 도입한 칼라



▲ 다카하시

가 첨가된 수종들에 관심을 가지고 신품종개발에 취중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조형된 향나무나 해송등을 선호 하였으나 현재에는 경기침체와 가격부담등으로 서양풍을 원하는 소비자가 많아 수목의 생태적 특성을 살려 자연적으로 성장한 잡목등과 다양한 수종이 필요하고 한 수종만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장은 현재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묘목재배는 포도재배로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나중에는 인건비등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정식간격으로 넓게 생산하여 수형이 잘 정돈 되어 있었고 거의 모든 수목에 미리 뿌리돌림을 해 놓은 상태로 있었으며 잡초 등 풀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었다. 농장의 일부에는 민간 수요의 취향에 맞는 수종을 개발하기 위해 유럽에서 들여온 칼라수목들을 심어 시험재배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수목 또한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연구하고 개발한다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연수단은 농장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다카하시 부부에게 간단한 선물을 증정한 뒤 서로 손을 흔들며 작별을 하고 농장을 출발하였다. 이동 중에 후지사와시내를 보면서 어디를 가든지 한적한 전원주택이 많이 있었으며 집집마다 해송, 가시나무, 단풍철쭉 등이 적게는 4~5주 많게는 10여주이상 식재되어 정원이



▲ 다카하시녹화원



▲ 유럽에서 온 칼리누스 모목지



잘 꾸며져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다음 이동 장소는 하코네에 있는 하코네 국립공원이었다. 이곳에 올라가는 동안 울창한 삼나무 숲과, 곧게 뻗은 편백 숲을 감상하면서 처음 도착한 곳은 칼테라 호인 아시노호였다. 약 3천년 전에 분화로 인해 강줄기가 막힌 화구원호로 면적 608km² 둘레 18km 최대수심 41m 수면높이 725m로 하코네 국립공원에 속하며 빈영양형호로 어류는 많지 않다. 마치 한쪽의 풍경화를 보는 듯한 잔잔하고 운치있는 호수였으며 호수를 바라보며 우리 연수단은 점심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마친 후 호수주변에 있는 유람선 선착장과 여기저기 잘 꾸며져 있는 소공원들을 둘러보고 우리 연수단은 유람선에 몸을 실었다. 유람선을 30여분 타고 도착한 곳은 하코네 마치이다. 이곳에서 오와쿠다니 계곡을 향하는 로프웨이를 타고 잠시 밑의 전경을 바라다보니 어느새 아시노호수가 한눈에 들어오고 뽀뽀하게 들어찬 울창한 삼나무 숲과 산딸나무, 편백 등등의 거목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다보니 어느덧 오와쿠다니 계곡에 도착하였다. 눈 앞에 펼쳐지는 산지 중턱에는 지금도 대지에서 하얀 분연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오와쿠타니 자연 연구로를 오르는 동안 코 끝을 자극하는 유향냄새가 나고 연구로를 따라 단풍철쭉등의 관목류들이 서식하고 있었으며 곳곳에 졸졸졸 흐르는 우유 빛 운수가 자주

눈에 보였다. 보글보글 솟아오르는 온천 못이 눈앞에 나타나자 온천 못 옆의 매점에서는 오와쿠타니 명물인 새카만 색의 삶은 달걀을 팔고 있었다. 온천에 포함되어 있는 황하수소와 달걀의 철분이 결합되어 검게 변하는 현상으로 그 독특한 맛은 대지옥의 염라대왕이 선사한 진미라고 한다. 우리 연수단은 달걀을 하나씩 맛을 본 뒤 이곳을 내려와 후지산으로 향하려 하였으나 비가 오는 날씨가 자욱한 관계로 버스에 승차 동경으로 귀환하면서 둘째날 일정을 마감하였다.

◎ 7월 2日 (세째날)

■ 황궁정원 → 니꼬 국립공원 → 지젠지호수 → 게근폭포 → 동조성 → 기누가와농원

오늘은 일정에 없던 황궁 정원을 둘러보기 위해 연수단 모두는 서둘러 오전 7시 50분 버스에 승차하여 황궁정원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황궁정원 개방시간은 9시였고 우리 일행은 30분정도 기다리면서 황궁주변을 둘러보았다. 역시 주위에는 인공연못과 돌을 정밀하게 쌓아놓은 성벽이 있었으며 작은 소공원과 산책로 비슷한 인도가 성벽을 둘러싸고 있었다. 드디어 개방시간이 되어 우리 연수단은 황궁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 받은 느낌은 확트인 녹지공간과 주변에 울창하고 큰 거목들이 서로조화

일본 기술연수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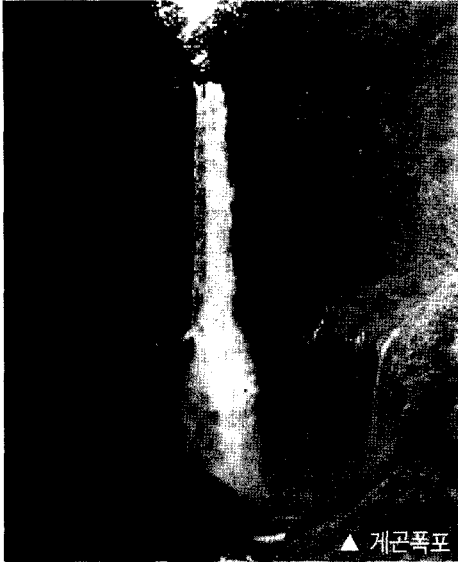
를 잘 이루고 있다는 느낌 이었다. 중앙에는 넓게 펼쳐진 잔디밭을 조성하고 잔디밭 옆으로 빙 둘러서 산책로를 만들고 느티나무, 빛나무, 녹나무, 해송 등 대형목을 길 주변에 식재하였으며 하부에는 지피류, 수국, 단풍철쭉 등으로 조성해놓고 있었다. 잔디밭 모서리나 중간 중간의 변두리에는 조형된 해송과 남부수종, 일정한 형태를 갖춘 단풍철쭉 등으로 포인트 식재를 한 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준다고나 할까? 잔디밭 끝에는 대형 느티나무 두주가 서있는데 넓은 잔디밭 에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이 한폭의 그림과 같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황궁 안쪽으로 들어 가보니 후정으로 보이는 정원이 잘 꾸며져 있었다. 이곳에는 연못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내부에는 중간 중간에 자연석을 배치하고 연못주변에는 반송과 단풍철쭉 등으로 일정한 형태를 만들어 놓았으며 일정부분은 일본전역에서 자생하는 꽃창포 수십 여종을 심어 놓았다. 연못 외부에는 자연석을 이용 실개천을 조성하여 연못과 이어지게 하였으며 주위로는 거목들에 둘러 쌓여있어 아담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전체적인 황궁정원의 느낌은 울창한 대형 수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고 넓은 잔디밭이 조성되어 자연풍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일본의 아기자기하고 섬세한 정형적인 조경형태의 정원을 둘러본 것 같았다.



▲ 황궁정원 후궁

우리 연수단은 황궁정원에서 나와 버스로 이동 닛코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닛코는 자연과 사적 등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먼저 주젠지호로 가는 동안의 주변경관은 참나무 숲과 고개 길 등이 절경을 이루고 있었으며 일본어의 기본이 되는 이로하 48 글자와 같이 48개의 커브길이 있다는 뜻에서 유래한 이로하 고개가 인상적이었다. 해발 1,269m에 위치하고 난타이 산의 분화로 생긴 주변약 25km의 호수인 주젠지호를 바라보며 점심식사를 마친 연수단은 일본 3대폭포의 하나인 게곤평포로 이동하여 주젠지 호수에서 흘러나온 물이 97m높이의 절벽에서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엘리베이터로 내려가 용소 가까이의 관폭대에서 굉음과 함께 물이 부서지는 절경을 바라 본 후 다시 동조성으로 이동하

일본 기술연수 결과보고서



▲ 게곤폭포

였다.

이곳 동조성은 에도 막부를 연 초대장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제신으로 하여 1617년에 창건 되었으며 진입로에 조성된 400~500년된 삼나무 터널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경내에는 세밀한 조각과 금박으로 장식된 신전이 있어 호화찬란하였고 400~500년 이상된 삼나무, 금송등이 잘 보존 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나뭇잎은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듣지도 않는다”는 윤리적 가르침을 표현한 눈, 귀, 입을 가리고 있는 3원숭이가 유명하였고 신전 내의 천정에 그려진 우는 용은 그림 밑에서 손뼉을

치면 그 소리가 공명하여 용의 울음소리와 같이 들린다는 이야기도 유래하고 있었다.

우리 연수단은 동조성 이곳 저곳을 둘러보고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기누가와 농원을 방문 하였다. 기누가와 농원은 1,500평 규모의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30여년 경영해온 농원이었다. 기누가와 사장은 소심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분으로 별로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의 부인과 두딸은 친절이 맞아주었다. 정원과 농장을 이곳 저곳을 둘러보니 주목, 단풍칠쭉, 해송, 팽팡나무, 노각나무 등이 30~40년이상 잘가꾸어져 있었고 한주 한주마다 정성을 다해 전정을 하고 유지관리를 한 흔적이 엿보였다. 요즘 경제가 불경기라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일본에도 이렇게 소규모로 경영하



▲ 동조성 삼나무 터널



▲ 기누가와 농원

고 있는 생산 농가도 있다는 데에 만족하면서 우리 연수단은 선물을 증정하고 기념사진 촬영 후 작별을 고한 뒤 기누가와에 있는 온천에 도착 하루 일과를 마쳤다.

◎ 7月 3日 (네째날)

■ 타니베농원 → 청봉원 → 아사쿠사관음사 → 우에노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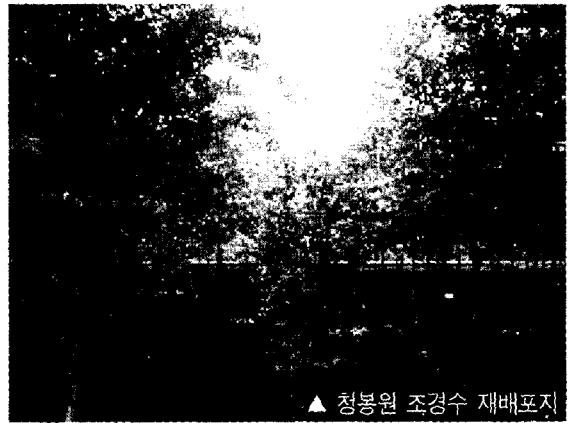
연수 4일째 오늘은 먼저 고속도로를 1시간 가량

일본 기술연수 결과보고서

달려 사이타마에 있는 타나베 농원을 방문했다. 타나베 농원의 타나베 사장은 인터체인지 까지 마중 나와서 우리 연수단을 맞이하였고 처음으로 안내한 곳은 대량으로 술이끼를 재배하고 있는 포지였다. 하부식재 및 정원등의 음지에 피복할 수 있는 특이한 소재이기에 우리 연수단은 술이끼재배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술이끼는 잘라서 잔다처럼 뿌려주고 로라로 다지면 뿌리에서 다시 자라고, 태양빛에 강하며 6~7월 정도의 습도가 적당하다고 한다. 여름철에는 생육이 정지되고 겨울에는 생명만 유지되어 빨강계 색이 변한다고 하며 일본정원에 주로 사용된다는 설명이 있었다. 이곳 술이끼 재배포지에 관심을 가진 우리 연수단은 타나베 사장의 안내로 타나베 농장에 도착하여 사무실로 모두 들어가 농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사무실 안에는 음료와 녹차 등으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 타나베농장은 1970년부터 조경수재배를 시작 33년간 경영해 오고 있으며 3만평 규모의 농장으로 현재 아들과 함께 일본 경제가 좋지 안음을 감안하여 새로이 유통사업을 하면서 공공사업에 재료가 되는 수목을 주로 재배하고 있었다. 유통시스템은 자가생산 20%, 다른 농장에서 공급이 80%이었으며 이윤분배는 생산자 재시가격이 100%이면 20%의 유통비용을 덧붙여 판매하고 있었다. 수목만 도매로 공급하고 공사는 하지 않으며 현재는 역시 일본경기 침



▲ 타나베농원 신수종 재배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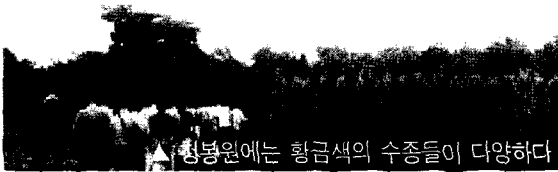


▲ 청봉원 조경수 재배포지



▲ 타나베농원 술이끼 재배포지

체로 유통판매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였다. 밖에 조성된 농장에는 신품종들이 재배되고 있었는데 특히 Summer Chocolate 이라는 붉은색 자귀나무와 프라멩고라는 수종이 우리 연수단에 매우 흥미롭고 즉시 구입하여 재배 하려는 회원도 있을 정도였다. 우리연수단이 신수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자 아들인 요시호까지는 e-mail 주소(zj6m-ysok@asahi-net.or.jp)를 알려주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친절히 알려주겠다고 까지 하였다. 일단 이들 신품종에 대해서는 차후 일괄 수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친절히 농장과 신소재 설명을 해주신 타나베 사장과 그의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함께 점심식사 후 우리 연수단은 타나베 농장보다 규모가 더 큰 청봉원으로 향했



▲ 청봉원에는 황금색의 수종들이 다양하다



▲ 청봉원농장 견학



▲ 우에노공원 왕벚나무 터널

다. 청봉원에 도착한 우리 연수단은 아쿠츠 사장의 안내로 농장을 둘러 보았는데 그 규모는 대단했다. 35ha의 포지에 35년간 재배경력으로 단풍철쭉, 메타세콰이아, 산딸나무, 직립성 느티나무, 자작나무, 계수나무, 배롱나무, 고로쇠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포지에는 제초작업을 기계화로 처리하여 풀 한포기 없이 깨끗하게 유지관리

하고 있었다. 특히 느티나무 등을 접목해서 직립성으로 개량하고 일본고속도로 주변에서 발견한 자작나무를 신품종으로 개발하였으며 산에서도 채취하여 농장으로 옮겨 재배하는 등 정열적으로 신품종을 개발하는 모습은 우리 회원들도 본받을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모든 포지에 재배되는 수목은 정식간격으로 식재하여 수형이 아름다웠으며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 트랙터로 포지를 갈아서 제초작업을 한 포지에 직립형 느티나무, 황금색갈의 메타세콰이아, 편백 등 신품종을 대규모로 대량재배하고 있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우리연수단은 청봉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면서 아쿠츠 사장과 작별을 한 뒤 동경에 있는 아사쿠사 관음사로 이동하여 간단히 둘러본 후 우에노 공원으로 향하였다. 우에노 공원은 동경 동북부의 문화활동의 중심지로서 박물관, 동물원, 미술관, 도서관 등이 들어서 있는 문화예술의 중심지이며 젊은이들과 가족단위의 나들이객들이 봄비는 시민들의 휴식처이기도 하다. 우리 연수단의 관심을 끈 것은 직립형 느티나무로 가로수 및 녹음수 등을 조성하고 왕벚나무를 곳곳에 식재하여 터널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밖의 산책로, 분수, 포장재료 등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마치 숲 속에서 산책로를 따라 산책하는 느낌이었으며 대형목의 식재와 재배에 우리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늦은 시간까지 일정에 없던 우에노 공원을 둘러본 우리 연수단은 오늘 일정을 마감하고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

◎ 7월 4일 (다섯째날)

■ 명치신궁경학 → 일본식목협회와 만남 → 나리타공항 → 인천공항 → 예산

연수 마지막날인 오늘은 오전 8시에 버스에 승차 마지막 일정인 명치신궁으로 출발하였다. 명치신궁은 명치천황 소헌황태후를 모시는 신사로 내원

일본 기술연수 결과보고서

과 의원으로 이루고 있었다. 신사 앞에는 한국의 홍살문과 비슷한 도리이가 세워져 있고 신궁 안에 있는 수목은 전국에서 헌납한 365종 12만 그루로 조성된 인공수림이라 한다. 그 규모면에서 작은 나무는 거의 없으며 대형목으로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었고 길가 옆의 배수처리 역시 자연친화적으로 검은 조약들로 배수가 되도록 꾸며놓은 점이 인상적이었다. 우리의 정서와는 다소 맞지 않는 신궁이지만 일본인들이 꾸며놓은 신궁안의 조경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느



낌이 든다. 명치신궁 견학 후 우리 연수단은 일본식목협회와 우호증진을 위해 나리타호텔로 향했다. 일본식목협회 회원들의 전체회의가 있는 날로 나리타호텔에서 회원 전부가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으며 우리협회 회장님을 비롯 몇몇 임원들과 일본식목협회 회장을 비롯 임원들이 만나 오찬 겸 간담회를 갖고 향후 서로 교환방문 및 정보교환, 교류증진 등에 합의하는 것을 끝으로 우리 연수단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다. 나리타공항에서 간단한 출국 수속을 마치고 출발한 우리 연수단은 드디어 인천공항에 오후 5시 20분경에 도착하여 공항로비에서 간단한 해산식을 하고 일본연수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한 성과를 가지고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IV. 결 론

일본 동경근교의 조경수생산, 유통, 조경공원 등의 연수를 마치면서 분명 우


리연수단에게는 무언가 소귀의 성과가 있었다는 점과 연수 중 느낀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력 절감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생산현장에서는 노동력 절감과 이식 후의 양호한 활착을 위하여 POT재배를 하고 있었으며 제조작업 또한 트랙터 등 기계를 이용 생산성 향상과 노동인력 절감을 하고 신제품개발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경기침체로 인해 공공사업의 수요가 부진하지만 활로모색을 위하여 일반인이 선호하는 수종과 기호를 파악, 다양한 칼라의 수목을 수입하고 잡목을 개발하는 등 묘목생산에서부터 성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구 개발하는 자세가 돋보였다. 그 중에서도 직립형 느티나무, 황금빛 메타세쿼이아, 붉은색의 자귀나무 등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 생산해 볼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일본 도심의 가로수라든가 공원등지에서는 대형목으로 식재하고 하부에는 지피류 및 관목으로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숲의 형태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엿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재천, 청계천 복원과 같은 생태조경과 월드컵 공원, 아파트단지 등 각종 조경공사에서 대형목의 활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단기간에 도심 속에 오래된 숲과 같은 효과를 주는 직립형이고 수형이 아름다운 대형목 재배와 지피류 등에 관심을 가져 친환경적인 도시녹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 유통체계의 확립이다. 일본의 조경수 유통과정은 생산자들이 설립한 조합이나 단체, 개인 유통센터가 주산지마다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생산교육과 유통구조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중간업자에 끌려 다니는 우리와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의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함을 새삼 느끼면서 우리 조경수 협회 회원들도 힘을 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유통센터를 조성하여야 하겠다는 생각

이 든다.

셋째, 우리 조경수협회의 힘을 키우자는 것이다. 이번 연수 중 일본식목협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일본식목협회의 경우 전국 800여명의 회원이 100%의 회비완납으로 연간 16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녹화용 조경수 생산기술과 연구지도, 수요처 확보와 공급체계 확립, 전국 생산현황 조사 및 수급정보교환, 품종별 규격별 공급기능 증진, 유통도지활용과 합리적 생산 개발지도, 유통 개선을 통한 집산기능 강화, 복지공제 사업, 국제교류촉진 등 다양한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협회의 경우에는 예산의 제약과 관심 부족으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협회원 모두가 협회발전과 권익을 위해 협회원 1,100여명이 혼연일체로 합심하여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생산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유통센터설립, 조경수생산농장 도양개량과 살포장비지원, 간이온실시설 및 관정시설, 조경수목 생산 원가계산 용역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 신수종 및 우량 조경수생산에 노력한다면 우리도 선진기법의 생산농가로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본다.

끝으로 이러한 연수기회를 마련해 주고, 연수비를 지원해주신 산림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경인을 비롯한 많은 임업인의 해외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주시고 영세한 조경생산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금년 연수단은 젊고, 무엇인가 배우고, 얻고자 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선진 조경기술의 습득과 신제품 개발, 향후 조경수재배의 방향등에서 소귀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보람을 느끼면서 보고서를 맺는다. 

연수 일정표

일시	출발지	도착지	일정	비고
6/30	인천	나리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출발 → 나리타 도착 • 황거, 신도청 전망대 	
7/1	동경	후지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경 → 치바현이동 • 조경수재배 농가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高橋綠化園 • 하코네 국립공원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호수, 오와쿠타니계곡 • 동경귀환 	
7/2	동경	닛코 기누가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궁정원 견학 • 닛코 국립공원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조궁, 쥬젠지호수 • 조경수재배 농가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鬼怒川農園 	
7/3	이사와	사이타마 동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기술 수목 및 묘목 식수지 방문 및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有)タナベ植木 • 대규모생산 및 조원녹화 관련 모범지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株)清峯園 • 아사쿠시 관음사방문 • 우에노 공원 견학 	
7/4	동경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치신궁 견학 • 일본식목협회 회장단과 우호증진교류 간담회 • 서울향발 인천도착 해산 	

일본 연수자 명단

No	성명	상호	직위	연락처	비고
1	강인	조경수협회	회장	063-858-3800	
2	김창옥	세양조경개발	대표	055-753-8474	
3	이임삼	동강조경	대표	062-363-1850	
4	이건성	회원조경	대표	055-292-9477	
5	김민우	광주전남서부	대표	062-373-9696	
6	이일우	상아조경	대표	052-247-1623	
7	정석봉	(주)공간조경	대표	051-583-8712	
8	김남영	대영농장	대표	055-854-7554	
9	정정녀	"	부인	055-854-7554	
10	이한승	삼우종합조경	대표	062-373-9696	
11	김봉식	광주전남서부	회원	062-525-1549	
12	김태곤	번암농장	대표	063-353-3384	
13	김옥이	"	부인	063-353-3384	
14	박성배	제일조경	대표	031-655-2461	
15	차갑준	화신농장	대표	061-755-1430	
16	김수영	한주경개발(주)	대표	033-653-9891	
17	이용규	주성조경	대표	042-824-9084	
18	강경일	태흥농장	대표	064-764-0419	
19	명천식	제일농장	대표	061-535-5829	
20	조규석	경북식물원	대표	053-963-6766	
21	노재신	(주)화신종합개발	대표	053-552-8022	
22	김정일	(주)지앤에이치	대표	02-383-5001	
23	김미자	"	부인	02-383-5001	
24	설구호	서암조경	대표	062-511-3194	
25	박영민	"	부인	062-511-3192	
26	박수세	"	직원	062-511-3192	
27	정명진	"	직원	062-511-3192	
28	김창열	"	직원	062-511-0425	
29	김영건	고인돌조경	대표	063-561-0425	
30	강문성	조경수협회	과장	02-961-2707	